

■ 상록탑

보잘것없는 세상에 나 하나 남겨두리



임영현 미디어부장

취업을 위한 인턴, 인턴을 위한 동아리, 학회, 스터디, 공모전, 자격증 시험, etc. 취업의 종착역으로 가는 모든 정류장이 상향 평준화된 한국 사회. “여러분, 여기 휴학을 하고 아무런 스펙도 쌓지 않은 대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모종의 이유로 지난 학기 휴학(休學)을 했다. 첫 휴학이 하필 코로나에 점령당한 세상이라니. 한 학기를 “나는 나와 놀았습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반년의 시간이 내게 남긴 건 무엇이었나.

나는 매일 기록했다. 기록이라고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영화가 됐든, 읽은 책이 됐든, 경험한 일상이 됐든. 그저 내 삶의 일부를 꾸준히 세상에 남겨보았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워드 파일 등 이곳저곳에서 내 발자취를 가득 담아주었다. 좋은 세상이지 않은가. 무엇을 하든 플랫폼이 준비된 세상이다.

사실 ‘의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건 1년 정도 됐다. 그전까지는 단지 SNS를 일기장처럼 사용하는 재미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기록 행위였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상 아이템을 떠올려야 한다는 생존적인 압박에,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한 것이다.

대학에 와서 어느덧 4년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높은 절벽 아래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좋은 아이템 하나를 떠올리던 비로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이다. 도무지 참신하고 새로운 소재가 생각나지 않아, 아주 작은 아이디어의 원전조차도 머릿속에서 남겨두어야 했다. 그 사소한 것이 좋은 기획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꿈을 꾸다 일어나도 ‘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써먹으면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비공식용으로 휴대폰 메모장에 간신히 기억을 남겼다. 언젠가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 하나 정도는 내놓고 마리라. 원대하고 철없는 꿈을 안은 채 기록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레퍼런스’는 생명줄이 아닐까. 휴학하면서 영화를 많이 본 이유도, 다른 이의 작품을 보며 새로운 시각을 얻고 새로운 소재를 끌어내 보기 위함이었다. 영화마다 마음에 들었던 연출을 기록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또 기록하고... 좋아하는 해외 록밴드의 뮤직비디오를 볼 때도 그냥 감상할 수가 없었다. 뭐라도 눈에 들면 메모해야 했으니. 물론 레퍼런스가 밥 먹여 주는 건 아니지만, 타인의 새로운 관점을 빌려 봐 보는 것만으로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들어도 기록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웃긴 일화를 말해주거나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곧이어 ‘이런 이야기를 써보면 재밌겠는 걸?’이라는 생각이 따라왔다. ‘스카이캐슬’의 우주엄마가 이런 심정이었던 걸까. 도대체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렇게 적어 둔 것들로 새로운 글을 써보기도 했다.

물론 휴학하는 동안 기록한 것들이 단지 영상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내게 남긴 건, 나를 알아가는 측면에 가까웠다. 세상은 빠르고 무책임하게 돌아간다. 실 틈 하나 안 준 채. 그런 세상을 잠시 접어두고, 나는 소설과 시를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개발하며 한 학기를 보냈다. 인턴을 했다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건 없었다만, 휴학은 사실 쉼(休)에 배울 학(學)자가 아닌가. 물론 걱정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일 테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기에, 그것만으로도 나의 첫 휴학은 꽤나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해본다.

얼마 전 수업시간에 99년 된 영화를 시청했다. 그 영화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중에 현재 살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세상이지 않은가. 가끔 이 세상에 왜 내던져진 건지, 끝이 존재하는 타임라인 안에서 아등바등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기록은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내가 남긴 것들을 통해 나는 나의 실체와 실존을 다시금 찾는다.

꾸역꾸역 연필로 눌러온 일기장과 독서록을 검사받던 초등학교생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를 손에 쥔 채 세상에 가까이 자신을 남겨본다. 나의 타임라인이 멈추어도 내 발자취는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기를. 아, 기록하기 딱 좋은 세상이라고구나.

■ 사진부 칼럼

미세먼지로 뒤덮인 이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길

민경민 사진기자

미세먼지가 또 한 차례 전국을 휩쓸었다. 15



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아직은

흐린 하늘이지만 곧 화사한 봄이 찾아오길 기대려 본다. 사진은 ECC 뒤로 뿌옇게 보이는 하늘.

■ 여론광장

여러분을 신학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이주는 기독교20

신학이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 앞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다. 오늘은 이 신학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기독교 신학에는 크게 정통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의 집이 있다. 그에 딸린 정원도 각각 존재한다. 정원의 모습은 그 집주인의 모습을 반영하기에 각 집 정원사들의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신교 신학에서 제일 오래된 집은 정통주의이다. 정통주의 신학은 가지 넝쿨이 얽힌 옛 중세시대 수도원 같은 오래된 건물과 다양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 집은 꽃 종자나 식물에 대해 잘 아는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집 앞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넝쿨을 집주인이 유지하고 싶다면 굳말 없이 넝쿨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넝쿨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넝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배척이 강한 성격을 보이기에 정통주의 신학의 정원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원의 모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 이 정원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 그 정원에 대해서 함부로 폄평한다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배척받는다. 배척의 근거와 정당성은 정통주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죄목’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집 정원에는 잡초가 있어선 안 된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정원을 유지하는 데 잡초는 정원의 근본을 망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잡초 제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주의 신학의 정원을 가진 집주인의 정원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정원을 떠올리게 한다. 이 집의 정원은 대칭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사람들이 매해 찾아와 사진을 찍을 만큼 많은 대중에게 공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원에 독이 될 수 있는 잡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체의 균형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정원을 정연하게 만드는 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동네의 정원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힘들다. 자유주의 각지고 좌우 대칭이 아닌 정원은 정원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통주의식 정원과 자유주의식 정

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간다. 매년 새로운 꽃을 심어야 하기에 종자를 사고 분뇨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원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해방신학의 집을 짓는다.

해방신학의 정원은 잡초와 들꽃으로 가득한 네이처다. ‘Nature’ 즉,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해방신학의 정원사들은 잡초와 들꽃으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든다. 잡초를 무성히 기른다면 집이 망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를 함께 가꾸면서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부터도 충분히 만족감과 공동체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집이 해방신학이다. 이 집에서는 잡초를 포함한 모든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함께 공존한다.

각각의 정원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존한다. 유서 깊고 전통 있는 정통주의 신학의 정원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질서 정연하고 대중적인 정원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 그대로 난 것들의 조화를 나누고 그로부터도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정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정원이 좋으신가요?

■ 금주의 책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마우로 기엔 지음 / 리더스북 / 웅진씽크빅 /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변화 시대가 급격하게 빨라졌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

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앞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화가 불러올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30년 인류가 경험하게 될 세계를 여덟 개의 키워드로 그려냅니다. 낮은 출생률, 실버세대, 새로운 중산층, 여성, 도시, 과학기술, 공유경제, 블록체인이 사회 전면에 부각되면서 변화를 이끌 것이고 그 바탕에는 새로운 부와 힘의 탄생이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과 노령화 문제가 더욱 가시화될 미래 사회에서 교육, 보건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조심스럽게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꿔 봅니다.

도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의 집합소이자 풍요로운 삶의 결정체인 반면 환경오염, 혼잡, 안전에 관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는 현재에도 유효해 보입니다.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책 / 3층 일반자료실 330.9 G9451한]

■ Z의 시선

생각하는, 작은 순간들

김영현 국문-19

일상의 연결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며 친구와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순간. 정류장에 서서 가족과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순간. 즐겁게 공연을 보고 나서 여운에 빠지는 순간.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나약하게 흔들리는 꽃에 시선이 가는 순간.

누군가는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으로서 이러한 순간순간이 성장을 이끈다고 믿고 싶다. 배운 지식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 친구와 가볍게 토론을 하고, 가족과의 식사를 상상하며 나와 다른 하루를 살았을 그들을 새삼 떠올려본다. 창작물에 담긴 세계를 나의 세계에 대입해보기도, 공동체 내에서 쉽게 지나침을 당하던 조용한 구성원의 존재를 깨닫기도 한다. 의식하기 어렵지만 자연스레 일어나는 사고의 확장이다. 하루

를 이루는 큰 사건들 사이를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구석구석 채워주고 연결하는 과정은, 나의 가치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충실하게 만들어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런 순간들은 사라졌다. 노트북으로 시청하던 강의 동영상도 종료되면 배움도 끝이 난다. 집에서의 하루는 가족들과 나눌 특별한 시간이 없고, 공연은 커녕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진다. 무료하고 외로운 마음에 스마트폰에만 손이 간다. 분명히 이전과 같은 24시간인데도, 타인 또는 나 자신과 소통하며 삶을 풍성하게 하던 순간들이 시시콜콜한 가십거리를 찾아보거나 짧은 유튜브 클립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차라리 책이라도 읽을걸, 후회하지만 ‘디지털 원주민’인 Z세대이기 때문일까. 자투리 시간에 책을 조금씩 나누어 읽는 것보다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보는 게 더 쉬웠다. 점점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떠먹여주는’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졌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인간의 사고와 그에 따른 자유의지는 인간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요즘 나는 내가 인간답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전에는 앞서 서술한 순간들처럼 자연스러운 사고의 확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금, 자신이 고립에 익숙해진 나머지 일상 속 경험과 감상을 종합하는 인간만의 주도적 사고를 멈추고, 접근성 좋은 정보에만 의존하며 퇴보하는 중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온라인 독서 토론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고, 정기적으로 랜덤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비공개 블로그를 만들어 작게나마 발버둥을 쳐보려고 했다. 의도적으로라도 사고의 순간을 회복하여 나를 풍요롭게 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지나간 시간만큼 성장한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